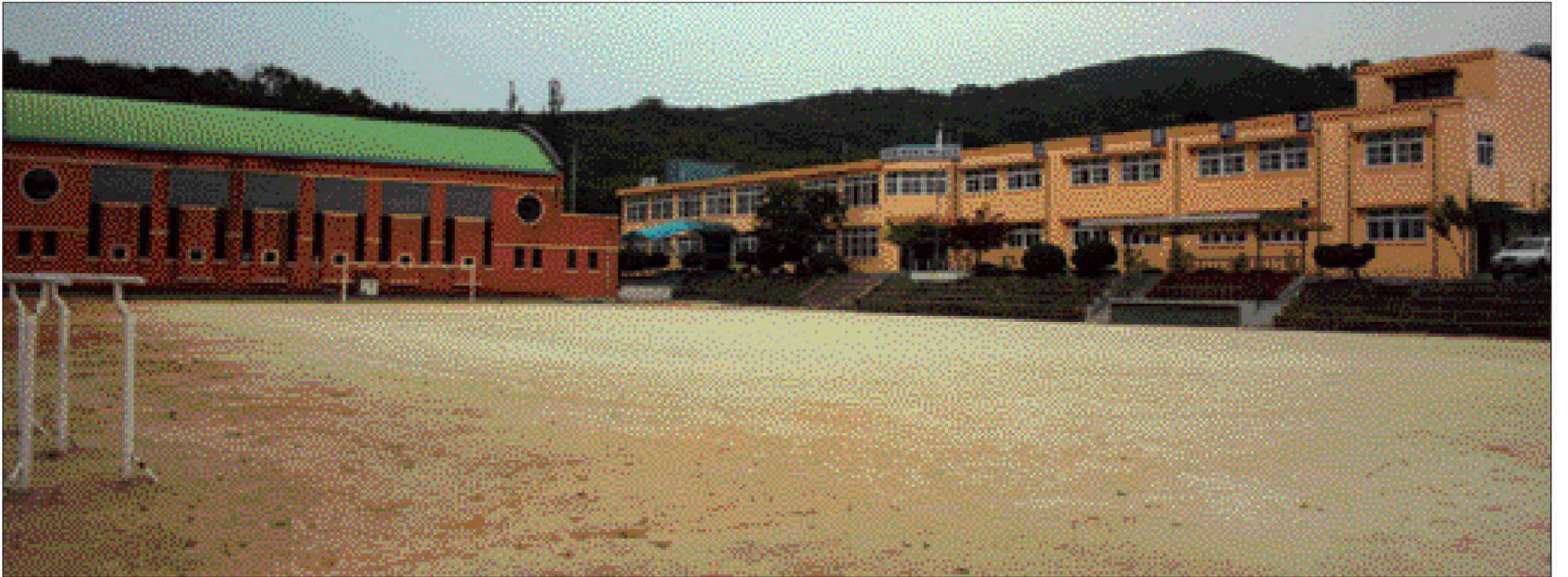


똑! 똑!

2009년 6월 22일 (월) 12



심도중학교 전경.

시골학교 기적 일군다

학교탐방 강화 심도중학교

학생 등하교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한 뜻으로 뭉쳐

강화도 마나산 입구를 지나자마자 여러 개의 안내판이 보였다. 자칫 지나치기 쉬운 그 안내판을 따라 들어가자 끝자락에 아담한 학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영락없는 시골 교정. 그 곳에서는 100명도 채 안되는 학생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하고 있다.
'심도중학교'(교장 김원수·58)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공립중학교다.
지난 1964년 12월 12일 공립심도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후 1965년 9월 20일 개교했다.
지난 2월 진행된 제42회 졸업식까지 총 3,418명의 학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1학년 25명, 2학년 28명, 3학년 32명 등 총 85명의 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대도시 학교를 생각한다면 소규모의 학교지만 지금 이곳의 변화는 대도시 학교 못지않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방과후 학교'.
시골 학교의 경우 부모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 또는 자기계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부모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쁨이 제공된다.
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유독 돋보이는 점은 이 것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였다. 강화도 내에서도 '심도중학교'는 오지에 속한다.
일반버스의 배차시간 간격이 길고, 오후 8시전에 버스가 끊겨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활동, 방과후활동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버스 운영의 절실함을 학교장 및 전 교직원과 지역유지,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건의를 강화교육청과 시교육청, 시의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됐다.
이런 노력으로 금년 3월말 교육청으로부터 1억2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세버스 2대를 임차해 이날 5월 8일부터 학교버스 운영을 시작했다.(아침 8:20 등교, 방과후 20시, 22시 하교)
이 버스는 아침 독서교육 및 10교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비 전액 무료, 등·하교의 안전성 확보, 현장학습과 각종행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부가적 효과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는 '방과후 학교'를



지난 5월 8일 학교버스 운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운영하기 위해 저녁식사로 제공하는 열성을 보였다.
점심식사에 비해 비용부담이 많은 저녁식사에 대해 학교 측은 반찬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와 직접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솥' 등을 비치해 학생의 편의를 도왔다.
심도중학교의 이런 적극적인 변화는 지난해 9월에 부임한 김원수 교장의 힘이었다.
김 교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선생, 학생, 학부모로부터 모두 외면 받았던 학교를 직접 자원해 온 후 학교변혁의 선두에 섰다.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년에 6회 정도 개최했던 '학교운영위원회'를 한 달 2회 이상으로 늘렸다.
학부모를 학교 사업에 끌어들이자 그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동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후 시골학교라는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바꿔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금은 학력향상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길에 위원은 "과거의 학교는 대화가 단절됐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어머니회와 함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덕 위원 역시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더욱 발전하는 학교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현재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심도중학교의 2009년, '작은 시골학교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성민 기자 hsi@edunha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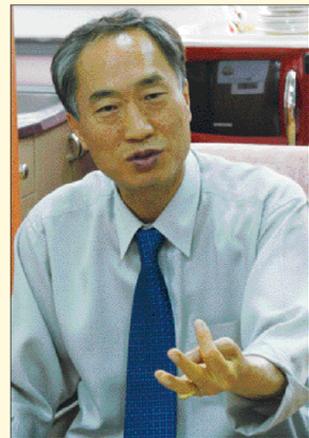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는 늘 즐거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아외음악당 전경.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원수 교장 인터뷰



심도중학교 김원수 교장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낙도 근무 횟수가 다른 교사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
이번 심도중학교 교장이 벌써 8번째 근무다. 그가 지금까지 거친 섬만 해도 3곳이고, 교사로 4회, 교감으로 3회를 섬에서 보냈다.
일부 다른 교사들이 낙도 근무를 '승진' (?)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 교장은 이에 대해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 도시 학교의 근무보다는 섬 지역의 근무가 훨씬 적성에 맞다는 이야기다.

- 유독 섬 근무가 많은데 특별히

이유라도 있습니까?

>>> 그냥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는 말보다는 특별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왜 섬에만 자주 들어가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보람이 큼니다. 도전정신도 생기고...
과거에 교감으로 근무한 후 다시 다른 섬으로 발령이 나니까 동료 선생님이 교육청에 반발을 심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전례를 비취봐도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가혹한 발령" (?)이라고 항의했지만, 사실 그때 그 발령은 제가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이뤄진 일입니다.
결국 교육청에서는 직접 해명을 요청했고, (해명) 후에는 그런 항의가 없어 지더군요. (웃음)

-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먼저 지역민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곳에 부임한 교사로 학부모도 그냥 '잠시 스쳐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생각을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이곳에 스쳐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곳으로 이사를 왔죠.(김 교장의 집은 강화군 은수리에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대화를 자주하면서 풀어가니까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하더군요.
믿음이 없었던 학교에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지요.

- 혼자 일을 해결하기에는 힘든 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어떤 분들의 도움이 컸나요?

>>> 어느 누구도 호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이동철 위원장의 노력은 가장 큰 공로였습니다.
학교 버스운행을 위해 이곳 저곳 같이 뛰어다니고, 학교발전기금도 쾌척하는 등 몰심양면으로 노력을 해주는 분입니다.

-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통학버스와 야간급식, 그리고 창호 교체는 그러한 맥락이죠.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들이 편하게 있어야 그 학교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